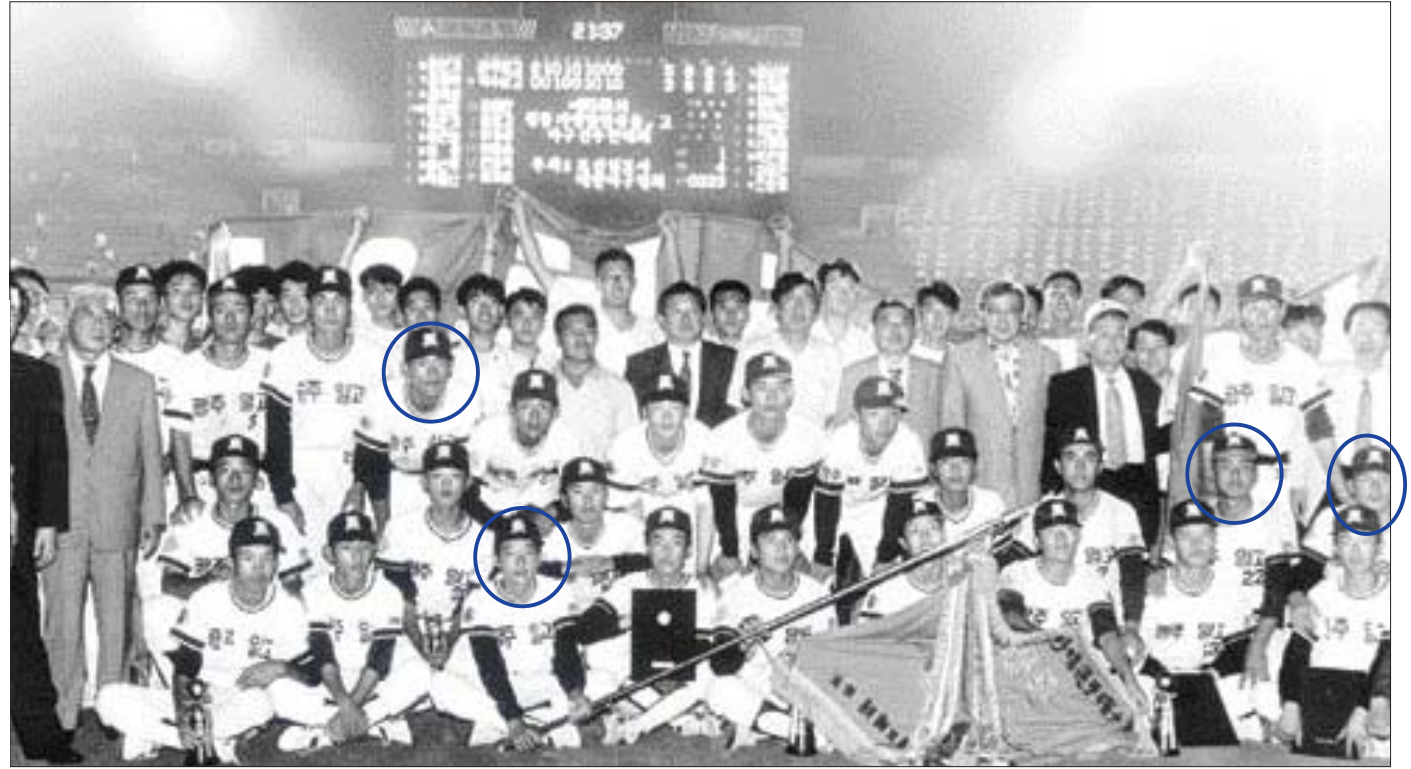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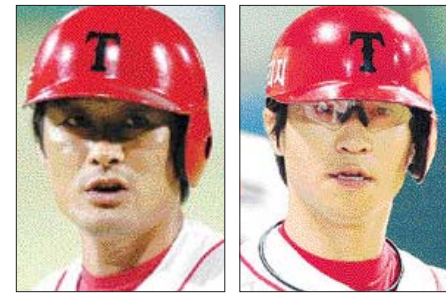
95년 청룡기야구 우승 이끈 '광주일고 4총사' 뭉쳤다

“그 때 그 기쁨 다시 한번”



광주일고 야구부원들이 1995년 6월 9일 서울 동대문야구장에서 열린 제 50회 청룡기 야구대회 결승에서 덕수상고를 5-3으로 꺾고 우승한 뒤 학교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원년부터 최희섭, 이현곤, 김상훈, 서재응. <광주일보 자료사진>

서재응 가세로 KIA서 한솔밤
“찰떡궁합 재가동...V10 달성”
이종범·김종국도 ‘同門 결의’



<이종범>

<김종국>

“다시 뭉쳤으니 우승 한번 더 하자”
서재응(30·71회)의 KIA 합류로 지난 95년 청룡기 우승을 이끈 광주일고 ‘4인방’이 다시 한번 ‘찰떡궁합’을 맞추게 됐다.
내년 시즌 KIA의 에이스와 중심타자로 활약할 서재응·최희섭(28·73회)과, ‘안방마님’ 김상훈(30·67회), 타격왕 이현곤(28·73회) 등이 1995년 이후 13년 만에 한 팀에서 다시 뭉치게 된다.
1995년 당시 투수 서재응은 3학년 졸업반이었고 최희섭(1투수)은 신입생이었다. 또 서재응과 호흡을 맞춘 포수는 다름아닌 현 KIA 주전 포수 김상훈. 내야에선 최희섭과 동기인 이현곤이 선배들과 유격수 자리를 놓고 경쟁했다.
그해 광주일고는 제50회 청룡기 우승을 차지하며 고교 최강의 전력을 과시했다. 서재응은 대회 최우수 투수상을 수상했다.
또 이현곤과 최희섭은 고교 3학년이던 1997년 송원국(2투수·은퇴), 정성훈(3투수·현대)과 당대 최강의 내야진을 구축, 그해 황금사자기 준우승을 이끌었고, 이현곤은 타격상을 받기도 했다.
서재응의 가세로 청룡기 우승의 주역 ‘4인방’이 KIA의 선봉부대를 맡게 되면서 내년 시즌 상위권 진입의 전망도 밝게하고 있다.
일단 1선발이 유력한 서재응은 포수 김상훈과 ‘찰떡궁합’을 맞추게 된다. 타선에선 최희섭이 1투수 겸 5번타자로, 이현곤은 3투수 겸 2번타자로 중심 타선을 이끈다.

또 광주일고 출신 선배인 이종범(37·64회)과 김종국(34·67회)은 외·내야에서 안정된 수비로 후배들에게 힘을 보탬 것으로 보인다. 유대관계가 끈끈한 고교 동문들이 한 팀에 뭉치면서 선수단 분위기가 상승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우선 실력과 후배들의 잇따른 합류로 팀 내 말형 역할을 맡고 있는 이종범과 김종국의 입지가 강화돼 해태(KIA 전신) 해체 이후 무너졌던 팀내 위계질서가 바로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종범이 최고참을 맡고 김종국이 보좌해 주면 동기인 서재응·김상훈은 허리 역할을, 최희섭, 이현곤은 젊은 후배들의 분위기를 책임지는 구도다.
올 시즌 중반 메이저리그 생활을 접고 KIA에 합류한 최희섭은 고교 동문의 효과에 대해 “당시 한국 적응이 걱정되었는데 이현곤 등 고교 동문들의 조언 등이 큰 도움이 됐다. (서)재응 선배도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중고참급에 속하는 재응 선배의 합류로 팀내 분위기가 한층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KIA 출신 그레이싱어
일본 요미우리행 결정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출신 세스 그레이싱어(32)가 이승엽(31·요미우리 라이언츠)과 같은 유니폼을 입게 될 전망이다.
요미우리 계열 스포츠전문지 스포츠호치는 10일 요미우리가 2년 총액 5억엔에 그레이싱어를 영입하기로 하고 이번 주 발표판 남겨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금액은 그동안 나온 보도와는 거리가 있다. 그레이싱어가 올 시즌 몸담고 있던 야쿠르트 스왈로스의 2년 6억엔 제안을 거절한 뒤 메이저리그 구단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 때 몸값이 2년 10억엔에 이를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기 때문.
하지만 그레이싱어는 교섭과정에서 “일본 내 우승 가능성이 있는 팀에서 뛰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 요미우리행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표기자 luck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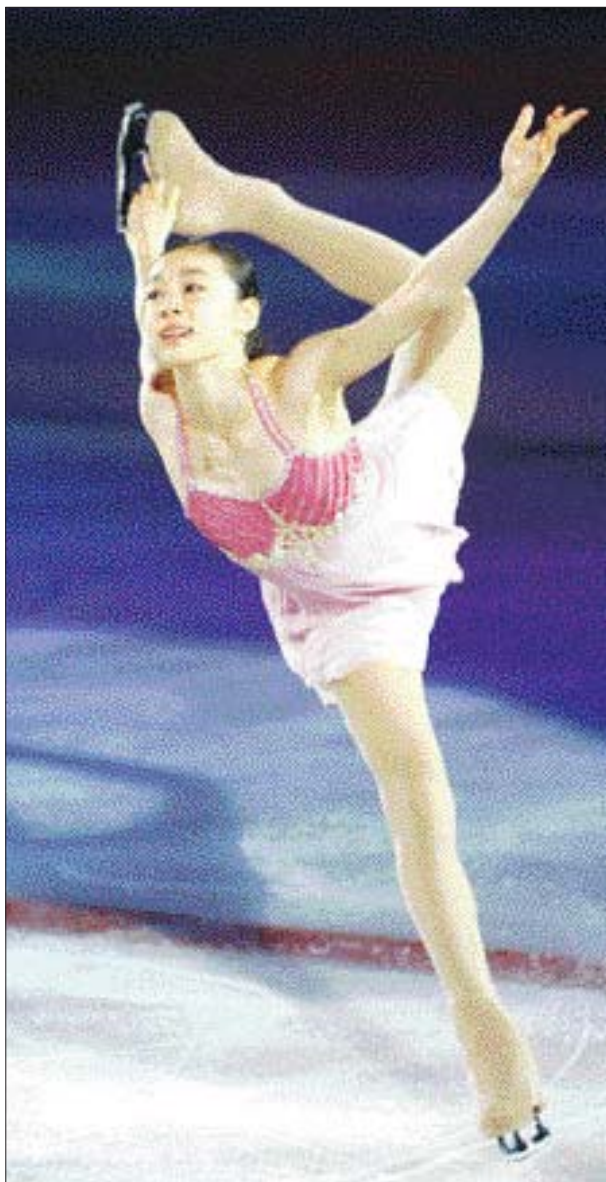
올 MVP 두산 리오스
日 야쿠르트서 러브콜

사이드암 투수 임창용(31)을 데려간 일본 프로야구 야쿠르트 스왈로스가 올해 한국프로야구 최고 투수로 우뚝 선 다니엘 리오스(35·두산) 영입에도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일본 스포츠전문지 스포츠닛폰은 10일 인터넷판에서 1선발 세스 그레이싱어와 재계약에 실패한 야쿠르트가 리오스를 최우선 후보로 찍고 협상을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리오스가 메이저리그에서 편견 고착 7게임에 불과하나 한국에서 6년 연속 두 자릿수 승리를 거뒀고 올해는 1990년 선동열 현 삼성 감독 이후 최다인 22승을 올렸다고 소개했다.
또 다승, 평균자책점, 승률 타이틀을 따내 외국인 선수로는 두 번째로 최우수선수에 뽑혔다는 점도 결정을 들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연아 “도전! 무결점 연기”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파이널 13일 개막
오늘 伊 토리노 입성...비공식 훈련 돌입
점프에서 실수만 없다면 대회 2연패 가능

김연아(17·군포 수리고·사진)가 2007~2008시즌을 빛낸 진정한 ‘피겨 여제’를 뽑는 마지막 무대를 앞두고 무결점 연기에 대한 각오를 다지고 나섰다.
김연아는 13일(이하 한국시간)부터 4일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치러지는 2007~200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 출전하기 위해 10일 캐나다를 출발,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해 11일 토리노에 입성한다.
지난 시즌 성인무대 데뷔 첫해에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우승 메달을 목에 걸면서 ‘차세대 스타’로 인정을 받은 김연아는 대회 2연패를 통해 진정한 여자 싱글 ‘최고 스타’ 자리를 지키겠다는 생각 뿐이다.
토리노 도착 첫날부터 체력훈련을 통해 시차적응을 마치고, 이튿날부터 비공식훈련을 통해 연기감각을 끌어 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연아에게 주어지는 공식 연습시간은 13일과 14일 단 두 차례. 이들의 현지 준비과정을 통해 15일 새벽 쇼트프로그램과 16일 새벽 프리스케이팅 연기에 나선다.
김연아는 지난달 그랑프리 5차 대회에서 우승한 뒤 캐나다 토론토로 돌아가 그랑프리 파이널에 대비한 훈련에 집중해왔다.
3차 대회에서 저평가 받았던 스핀과 스텝 연기를 보강해 5차 대회를 통해 안무에 변형을 주면서 레벨을 끌어올렸던 만큼 그랑프리 파이널 역시 정확한 점프와 안정된 연기를 펼친다면 2연패 달성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동갑내기 라이벌’ 아사다 마오(일본)가 이번 시즌 점프에서 ‘잘못된 예지’ 사용으로 감점이 속출했던 것을 고려하



면 김연아가 점프에서 넘어지는 실수만 하지 않을 경우 충분히 금메달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규혁·이상화 빙속 ‘銅’

<남자 1,000m> <여자 500m>

ISU 월드컵 4차대회

스피드스케이팅 ‘말형’ 이규혁(29·서울시청)과 단거리 전문 이상화(19·한국체대)가 2007~200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4차 대회 남자 1,000m와 여자 500m에서 나란히 동메달을 차지했다.
이규혁은 10일(한국시간) 네덜란드 헤렌벤에서 막을 내린 대회 남자 1,000m 디비전 A(1부리그)에서 사나 데이비스(미국·1분8초39)와 데니 모리슨(캐나다·1분08초71)에 이어 1분08초80으로 3위에 올랐다.
이로써 이규혁은 이번 4차 대회에서 500m 은메달과 1,000m 동메달을 따내는 뛰어난 성적으로 대표팀 말형의 임무를 완수했다.
특히 이규혁은 이날 동메달로 월드컵 랭킹 포인트 70점을 보태 총점 270점으로 이날 금메달을 따낸 데이비스(330점)에 이어 남자 1,000m 세계랭킹 2위로 뛰었다.
합계 출전한 문준(25·성남시청)은 1분09초01로 6위에, 이기호(광문고·1분10초17)는 11위에 올랐다.
또 여자 500m 디비전 A 2차 레이스에 나선 이상화도 ‘단거리 여제’ 예니 볼프(독일·37초81)와 왕세이싱(중국·37초92)에 이어 38초59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3위를 차지했다.

프로배구 신인 김요한·유광우 데뷔 늦어질 듯

월드컵서 부상...재활기간 필요

올해 프로배구 남자부 신인 최대인인 LIG손해보험의 김요한(22·광주전자공고 출신)과 삼성화재의 유광우(22·이상인하대 졸업 예정)가 부상으로 데뷔가 늦어질 전망이다.
올해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LIG손해보험의 지명을 받았던 김요한은 계약조건을 놓고 입단을 거부하다 8일 선수단에 합류했지만 올해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했던 월드컵에서 발목과 손목을 다쳐 재활 기간이 필요하다.
2m의 훔칠찬 키와 화끈한 스파이크 실력, 연예인 뺨치는 외모로 높은 ‘상품성’을 인정받아 입단 쪽으로 가닥이 잡혔음에도 부상에 발목을 잡힌 것이다.
삼성화재에 전체 2순위로 낙점받은 국가대표 세터 유광우도 사정은 김요한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요한처럼 계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우선 팀에 합류한 유광우는 월드컵 때 입은 발목 부상에 시달리고 있어서다.
10일 발표 정밀검사를 받은 유광우는 치료와 회복에 최소한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여 내년 1월에 시작하는 3라운드에야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다르지 않다.
김요한처럼 계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우선 팀에 합류한 유광우는 월드컵 때 입은 발목 부상에 시달리고 있어서다.
10일 발표 정밀검사를 받은 유광우는 치료와 회복에 최소한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여 내년 1월에 시작하는 3라운드에야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골프·연도 회원권개 전환기임
특별리 회원권
골프 황 시세 1만원, 골프 황 시세 1만원
광 주 3,500, 광원900 5,200
남광주 4,300, 파인힐스 12,200
승 주 8,200, 힐 팜 7,400
상당 분의 (062)351-0095